

장애인 차별

현재 많이 개선되었을까?

1316 이진우



코레일의 장애인 차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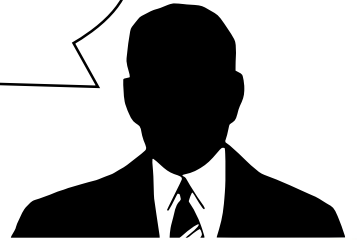


코레일이 2018년 3·4분기까지 정규직 신입사원 1126명을 채용했으며 이중 장애인은 단 1명으로 전체의 0.09%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논란이 되고 있다. 이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인 2.78%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. 코레일의 장애인 채용율은 매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. 코레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공공기관이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.

장애인에 대한 채용 차별, 왜 일어날까?

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업무 능력이
떨어질 것이라는 고정 관념!

장애인은 장애가 있으니까
일을 잘 못하겠지?



장애인 채용 차별, 어떻게 해결할까?

-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

-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재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

- 정부의 장애인을 위한 대책 마련

- ex)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



- 장애인 차별 금지법

- 제 4조 차별행위,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, 간접차별, 정당한 편의제공거부, 광고에 의한 차별을 말한다.

- 장애인 차별 신고

- 국번없이 1644-8295, 1522-0031
- 112



장애인 고용, 비장애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.

장애인의 재능을 인정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
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. 모두가
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시다.

